



전남문화재단이 서울옥션과 진행한 '제로베이스 in 전남'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정선영 작 '공존'

# 지역작가들 기지개

전남문화재단, 서울옥션 경매 66점·8800만원 낙찰  
10월 여수 장도서 미술축제 '블루 아트 페스타'도 개최  
'프리뷰-광주아트21', 생각상자 '마중물전' 호응

그 어느 때보다 미술 시장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이다. 움츠렸던 지역 미술시장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이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문화재단이 진행한 인터넷 경매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첫 해였던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제로베이스 in 전남'은 지역 작가들을 중앙 화단에 소개하기 위해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과 공동기획한 프로젝트로 경매 참가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 받은 후 서울옥션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참여 작가를 선정한다. 지난 30일까지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열린 경매에는 박재성·한임수·공기평·위성웅·정선영·추순정·최인경 등 총 7명이 참여해 66점을 선보였다. 주최측은 작품 소개와 참여작가들 작품 세계에 대한 인

터뷰 등을 온라인 전시장에 올려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참가작들은 0원부터 경매를 시작해 100% 낙찰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8800만원이었다. 최고가 낙찰 작품은 광양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정선영 작가의 '공존'으로 58번의 경합을 통해 650만원에 낙찰됐다. 한임수(순천) 작가의 '붉은 깃발'도 50회 경합을 펼쳐 420만원에 낙찰됐으며 한 작가는 참여자 중 가장 많은 15점을 판매했다. 두 작가는 서울옥션 상반기 결산 경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작가 8명의 작품 80점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됐으며 총 낙찰금액은 7475만원이었다. 고차분 작가의 '다른 선택'이 48회 경합을 벌여 40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서울옥션상반기 결산 경매에는 고차분 작가 1명만 참여했다. 재단은 전남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 관광과 결합한 미술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아트페어 지원, 옥션 참여 등 작가들의 수도권 진입을 지원했던 데서 더 나아가 지역 시각예술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한 '교류의 장'을 펼친다. 오는 10월 14-19일까지 여수 장도에서 열리는 '블루 아트 페스타(BAF)'는 장도 전시관 뿐 아니라 섬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장도는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GS칼텍스 예술마루' 앞에 자리한 섬으로 장도예술마루 창작스튜디오와 120평 규모의 장도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전시 주제-참여 작가-작품 선정, 부대 프로그램 구성 등을 총괄할 전시 기획자로 문제성씨를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예술마루와 창작스튜디오를 여수시에 기부채납한(재)GS칼텍스재단과 공동 기획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오프라인 행사를 열지 못했던 '아트광주 21'은 올해 작가 개인부스를 폐지하고 프리뷰 전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변화를 추구 하고 있다. 10월 열리는 본 행사에 앞서 지난달 관서재 갤러리에서 열린 '미술의 숲: 프리뷰-아트광주21' 전시에는 27명의 작품이 나왔고 이 중 김성걸·최순인·진희 작가의 작품이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작가들에게 돌아갔으며 지역 작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프리뷰 전시는 오는 10월까지 모두 4차례 더 개최해 작가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최측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아트페어 오프라인 행사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올 본 행사에서 좀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시작된 '마중물전' (7일까지)은 5일 현재 참여작 중 72점이 대부분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전시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와 그림을 한 번도 구입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작품 소장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으로 '30만원 균일가전'이라는 파격적인 전시로 기획돼 인기를 모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1 상반기 경매시장에서 42억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한 샤갈 작 'Le Jardin de Saint Paul'  
(사)한국미술시각정협회 제공

# 상반기 낙찰 총액 1위 이우환

김창열·쿠사마 야요이 순...총 거래액 1438억 작년 3배  
최고가 작품, 마르크 샤갈 42억·김환기 30억5000만원

올 상반기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1위를 차지한 작가는 약187억원(낙찰률 86%)을 기록한 이우환 작가였다. 또 전체 경매 시장 매출규모는 약 1438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배 증가해 미술계 시장이 호황임을 입증했다. 조사는 낙찰총액 1위를 기록한 서울옥션 등 국내 8개 경매사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 결과를 분석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각정협회(이사장 김영석)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1438억원으로 지난해 490억원, 2019년 826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낙찰률은 65.4%를 기록, 지난해(64.5%)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총출품작과 낙찰작은 1만6822점과 1만999점으로 지난해의 1만4224점과 9173점보다 훨씬 많았다. 낙찰 총액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우환 작가에 이어 김창열(130억원·낙찰률 91.6%), 쿠사마 야요이(121억원·85.4%), 김환기(119억원·72%), 박서보(79억원·96%)가 5위 안에 들었다. 20위권 안에는 정상화·윤형근·유영국·이중섭·박수근·김태호·김종하·이강소·이왕중·박생광 등 국내 작가와 마르크 샤갈, 요시토모 나라, 데이비드 호크니, 줄리안 오피, 게오르크 바젤리츠가 포함됐다. 최고 낙찰작은 마르크 샤갈의 'Le Jardin de Saint Paul' (1973)로 42억원을 기록했으며 김환기의 '27-VI-71#221' (1971)이 30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쿠사마 야요이의 'Silver Net' (2014)와 'Infinity Net' (2010)은 각각 29억원과 23억원으로 3·4위를 차지했다. 낙찰총액 상위 5순위 국내 작가에 대한 'KYS 미술품 가격지수'도 공개됐다. 이 지수는 같은 작가라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작품 주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적용해 세부 주제별 평균 호당 가격을 선정한 것이다. 그 결과 호당 가격 1위는 약 2787만원을 기록한 김환기였으며 이우환(1608만원), 박서보(1171만원), 김창열(860만원), 정상화(657만원) 순이었다. 김영석 이사장은 "최근 이견의 컬렉션 기증 사례나 미술품 투자 열풍 등이 가세해 미술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올 여름 피서는 '캔터빌의 유령'과 함께

광주문예회관, 10~11일

올 여름, 가족과 함께 공연장으로 시원한 피서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문 예회관)이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10일 오후 7시30분, 11일 오후 3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명작 소설을 섹다르게 구성해 만든 창작뮤지컬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중 어린이 가족극 분야에 선정된 작품이다. 300년간 수많은 사람을 겁주던 유령이 사는 영국 캔터빌 저택에 겁 없는 미국인 오티스 목사 가족이 이사 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아이와 어른 모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채워져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원작에서는 생전에 악행을 저지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유령이 버지니아의 기도로 잠들게 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버지니아의 충고를 듣고 진심으로 사과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맞이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공포소설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원작의



문학성을 살리는 해설과 1인 다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밀도 높은 연기에 더해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선율은 두배의 감동을 선사한다. 문화회관은 공연장을 찾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광주지역 장애인들을 무료로 초청할 예정이다. 전석 2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들려주는 음악동화

10일·8월 남구문예회관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동화를 클래식과 함께 선보이는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다. 지난해는 코로나 19로 한해 쉬었지만 올해 또 다시 그 여정을 이어간다. '피아니스트 김정아가 들려주는 음악동화 I·II'가 오는 10일 오후 3시와 8월 21일 오후 3시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7월에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과 빨방의 음악동화 '아기코끼리 바바' 이야기를 해설과 함께 선보인다. 아기코끼리 바바 이야기는 사냥꾼에게 엄마를 잃은 바바가 도시와 인간의 생활양식을 탐험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코끼리 왕이 된다는 내

용으로 장 드 브루노프의 동화에 작곡가 빨방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든 곡이다. 8월 연주회에 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과 프록피에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영상,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김정아는 '피아노듀오로 떠나는 세계여행', '자녀와 함께하는 클래식아카데미'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음악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홍부와 놀부' 이야기에 고전클래식음악과 창작음악을 결합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티켓가격 5000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창작희곡 당선작 '양림' 배우 모집

광주시립극단은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양림' 낭독공연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자유연기, 면접이며 선택과목은 노래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림'은 지난해 제1회 창작희곡 공모전에 당선된 이정아 작가의 작품으로 광주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광주 양림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오는 8월 30일 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13-82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